

지역 매 아리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원 '지방 예산 공부방' 특강

부안군의회(의장 이현수)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 예산 공부방'이라는 자체 특강을 마련해 실시했다.



28일 강사로 나선 문찬기 의원은 기획감사실장 등을 역임한 지난 40여 년 간의 공직생활과 제대 의회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지방 예산과 결산, 교부세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하우 등을 담은 책자를 알기 쉽게 직접 편집·제작해 동료의원을 대상으로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문찬기 의원은 "지방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 뿐만 아니라 자치 분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8회 부안 군의회는 지난 7월 전반기 원구성 이후 두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군정에 관한 보고와 새만금 개발청 등 청사 부안 설치 건의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소화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구절초아카데미 수료식 성료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단장 문채련)은 지난 27일 '정읍구절초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구절초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자 창업예정자 20명을 대상으로 지난날 24일부터 매주 2회씩 진행했다.

교육은 11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교육출석률은 94%, 수강생 20명 전원이 수료했다. 과정은 구절초를 이용한 떡과 초코파이, 향초 만들기 등 다양한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농식품 가공의 이해 및 식품위생법, HACCP 등 이론교육과 함께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현장체험 등도 이어졌다.

수료식에서 교육생 대표 김중구 씨는 "정읍시 시화인 구절초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실습할 수 있어서 창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은 "앞으로도 구절초아카데미에서는 전문가관과 연계해 생산농가·가공업체·체험관광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연차별, 단계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보화 격차 해소 기여

부안군,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부안군이 관광부안을 찾는 누구나 자유롭게 핸드폰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WiFi)존을 설치, 인터넷 사용과 정보화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부안실내체육관을 비롯하여 아담 사거리, 매창공원, 터미널 사거리, 시계탑, 젊음의 거리 분수대 등에 확대 구축하고 오는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직선거리 최대 200m 이내에서 동시에 200명이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스마트 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Public Wi-Fi를 선택하면 데이터요금 걱정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부안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8 무료 와이파이 구축 공모사업에 줄포생태공원, 모항해수욕장, 부안 영상테마파크가 선정됨에 따라 오



부안군이 부안을 찾는 누구나 자유롭게 핸드폰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존을 설치했다.

는 11월까지 사업구축과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뒤 12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안군은 데이터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서비스가 지역민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과 정보화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아산면, 활기찬 소통 민원실 운영... 편안한 휴식 공간 '호음'

고창군 아산면이 민원실을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면민의 소중한 휴식 공간과 소통공간으로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아산면에 따르면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자동안마의자와 초음파 자동안마경석치기, 지역특산품인 복분자 사탕, 젤리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시(時)가 담겨있는 커피를 설치해 눈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민원인이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행복한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아산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강국신)에서간단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양팔의 혈압을 체크, 비교할 수 있는 양팔 전자혈압계도 지원하여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의미를

더했다. 이중면 아산면장은 "잠시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친절함 민원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에서의 여유를 찾는 가운데 편안하면서도 활기차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농업의 미래 청년창업농에게 답을 찾다

유기상 군수, '고창청년벤처스'와 대화의 시간 가져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농촌청년사업가와 지난 27일 오후 창업과 농업이 활력이 넘치는 고창 만들기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연일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는 유기상 군수는 이날도 고창읍내 한 카페에서 20명의 젊은 CEO로 결성된 고창청년벤처스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군수와 회원들은 농업과 식품산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청년이자 사업가로서 의무와 나아갈 방향, 창업 노

하우 재능기부 등 서로 힘을 모아 소통하며 잘사는 상생경제 만들기에 뜻을 같이 했다.

시종일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대화의 시간에서 유기상 군수는 "민선7기 고창군은 '농생명문화 화살'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만들기 위해 농업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에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며 "창농과 창업에 뜻이 있고 재능을 갖춘 젊은 청년사업가가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창업이 고창 농업의 100년을 책임지는 만큼 함께 힘을 합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브랜딩하여 천하제일 농군 고창으로 다시 치솟는 기회를 마련하자며 회원과 결의를 다졌다.

한편, 청년벤처스는 농축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청년 CEO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주 정기토론회와 소모임을 개최하여 창업과 사업 확장을 도모하는 자율적인 학습단체다.

고창군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청년성공창업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언제나 가족이 힘입니다"

정읍시,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 운영

정읍시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을 갖는다. 시는 이달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과 태산 선비문화권 일대에서 캠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캠핑에는 14가족 내외가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첫째 낚시 가족 소개 등으로 진행되는 입소식을 갖고 명랑운동회(체육활동), 체험활동인 '바다캔들' 등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산외와 칠보, 태인 일대 태산선비문화권 견학과 함께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유진섭 시장은 "가정이 안정되고 화목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화목한 가정의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다"며 "부부 간 건강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사회도, 국가도 튼튼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정친화적인 시책을 마련해 시민 모두가 밝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물품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캠핑에는 14가족 내외가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첫째 낚시 가족 소개 등으로 진행되는 입소식을 갖고 명랑운동회(체육활동), 체험활동인 '바다캔들' 등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산외와 칠보, 태인 일대 태산선비문화권 견학과 함께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유진섭 시장은 "가정이 안정되고 화목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화목한 가정의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다"며 "부부 간 건강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사회도, 국가도 튼튼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정친화적인 시책을 마련해 시민 모두가 밝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물품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일 오후 5시부터 공설운동장 입구 특설무대(우천 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제8회 상교동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정읍시, 내일 제8회 상교동 작은 음악회 개최

내일 오후 5시부터 공설운동장 입구 특설무대(우천 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제8회 상교동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상교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주최로 개최된다. 자치위는 주민들에게 품격 있고 내실 있는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분야 악기 연주자와 트로트 4인조 걸그룹 오로라를 비롯해 실력 있는 가수를 초청했다.

음악회의 시작은 예술버스 공연(벨리댄스, 미술)을 시작으로 기념식, 악기연주,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악기연주 행사는 오케스트라 합주,

색소폰·클래식타 연주가 있어 서늘한 초가를 밤의 정취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위 관계자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8월의 끝자락에 열리는 음악회가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힘들었던 동민들에게 위로와 감동,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product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different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